

개인의 성별, 정보추구성향 및 불건강 행위 간 관계 연구

이동숙¹

¹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Information Seeking Style and High Risk Behavior in Korean Adults

Lee, Dong Suk¹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gender, information-seeking styles, and high risk behavior in Korean adults. **Methods:** A survey utiliz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of the study variables. Eight hundred fifty six adults were recruited and this group consisted of 403 females and 453 males. Information seeking style and high risk behavior were measured by Miller Behavioral Style Scale revised by Zurren and Wolfs, and High Risk Behaviors checklist developed by Lee, respectively. **Results:** Differences between gender were significant in information-seeking styles and high risk behavior. Monitoring and blunting scores were both higher in female than male, and high risk behavior was higher in males than females. The blunting style was positively related to high-risk behavior and the monitoring style was negatively related to high risk behavior. **Conclusion:** To intervene with high risk behavior effectively,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gender and information seeking style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research about well-designed health information support is needed in the future.

Key Words : Information, Gender, Health behavio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의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부분의 질병은 주로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보다 개인의 불건강한 생활양식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이 이제는 일

반화된 보건 지식이 되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a; WHO, 2006). 최근 들어 공공보건기관에 의한 전국적인 건강교육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질병예방에 관한 공익광고가 전보다 많이 방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하나라고 하겠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강정보 제공에 의해서도 개인의 불건강 행위가 쉽게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을 위한 대대적 홍보와 각종 프로그

* 이 연구는 2005학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음.

Corresponding address: Lee, Dong-Suk, RN, Ph.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91-1 Hyoja 2-dong, Chunchon 200-701, Korea. Tel: 82-33-250-8887, Fax: 82-33-242-8840, E-mail: ds1119@kangwon.ac.kr

투고일 2007년 3월 5일 심사이뢰일 2007년 3월 5일 심사완료일 2007년 4월 10일

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아직도 세계 1위이다(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b). 또한 음주에 대한 캠페인과 보건교육 프로그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전체 음주율은 1998년 53.1%, 2001년 76.5%, 2005년 83.9%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a). 이러한 현상은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양이 같더라도 정보추구성향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건강 행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정보를 추구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적극적인 정보추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 정보를 회피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Lee & Lee, 2003). Miller(1987)는 개인이 위기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내는 습관적인 정보추구 행동 유형을 정보추구성향(information seeking style)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정보탐색형(monitoring) 성향과 정보회피형(blunting) 성향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정보추구성향은 개인의 건강행위변화나 예방적 건강행위 수행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Shi, Nakamura, & Takano, 2004).

개인의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hi, Nakamura와 Takano(2004)는 정보추구가 건강행위변화와 긍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Steiner 등(2002)에 의하면 정보회피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불건강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Votta와 Manion(2004)도 정보회피형 성향이 자살충동, 자살 과거력, 우울증상, 개인적 혹은 사회적 불건강 행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이 속한 문화와 성별, 연령, 소득, 직업, 건강제공자 유무 등이 보고되고 있다(Liu et al., 2006; Mayer et al., 2007; Rice, 2006; Stein & Nyamathi, 2000). 이 중에서 특히 성별에 의한 차이가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다. Stein과 Nyamathi(2000)는 성별에 따라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여성의 정보회피형 성향은 불건강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면, 남성의 정보회피형 성향은 불건강 행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여성의 정보탐색형 성향은 불건강 행위를 감소시키는 반면, 남성의 정보탐색형 성향은 불건강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ice(2006)는 인터넷으로 건강정보를 추구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은 성별이라고 지적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인터넷 건강정보추구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Mayer 등(2006)은 일반인이 아닌 암 생존자들의 정보추구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정보추구 행위의 예측요인 중의 하나로 성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구들은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간호사들은 개인의 불건강한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로서 대상자에게 건강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Shi, Nakamura와 Takano(2004)는 성공적으로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건강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Mayer et al., 2007; Rice, 2006; Shi, Nakamura & Takano, 2004; Stein & Nyamathi, 2000; Steiner et al., 2002; Votta & Manion, 2004)을 통해 볼 때 불건강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정보 제공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추구 성향과 성별은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즉,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개인의 성별, 정보추구 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추구 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를 탐색하고,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자주 지적되고 있는 성별에 따른 두 변수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자의 성별이나 정보추구성향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강정보제공이나 건강캠페인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성별, 정보추구 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보추구성향, 불건강 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성향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불건강 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정보추구성향(information seeking style, habitual coping style)

이는 개인이 위기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내는 습관적인 정보추구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Miller, 1987), 여기에는 두 가지 성향인 정보탐색형 성향(monitoring style)과 정보회피형 성향(blunting style)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ller(1987)의 정보추구양식척도(Mille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al Style Scale, MBSS)를 Zurren과 Wolfs(1991)가 5점 총화평정척도로 바꾸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불건강 행위(high risk behaviors)

불건강 행위란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것과 건강기여행위의 불이행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Lee, 2004) 본 연구에서는 음주, 흡연, 식이, 운동, 건강검진, 약물남용, 교통안전, 안전한 성행위 등 8가지 영역에서 건강위험행위 정도 및 건강기여행위의 불이행을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정보추구 성향과 불

건강 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의 표출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성 453명, 여성 403명 총 856명이다. 대상자들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자료수집 초기에는 대상자가 남성 460명, 성인 여성 460명이었으나 자료수집 후 응답이 불충분한 64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적으로 856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 성향과 불건강 행위 정도를 비교하고자 할 때 효과크기를 0.1로 하고,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0.80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표본 수는 각 그룹당 393명으로 총 786명이 필요하다(Cohen, 1988).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효과 크기를 매우 작게 정하여 필요한 표본수를 높게 계산하였고, 대상자를 임의 표출하였기 때문에 분포의 정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대상자수보다 더 많은 대상자수를 확보하였다. 임의표본이 갖는 대표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29세, 30-39세, 40-49세대, 50-65세 미만의 대상자 수를 서로 비슷하게 표집하고, 성별 비율도 유사하게 표출하였으나 엄격하게 층화표출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대표성 제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연령만 조사하였고,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는 다음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정보추구성향 측정도구(Miller's Behavioral Style Scale)

이 도구는 위기사건에 대처하는 정보추구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iller(1987)에 의해 개발된 40문항의 도구이며 처음 개발되었을 때에는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Zurren과 Wolfs(1991)가 5점 총화평정척도로 바꾸어 측정하여 더

높은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총화평정 척도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두 가지 정보추구성향인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을 각각 측정할 수 있고, 각 20문항으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성향마다 20문항씩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점수의 범위는 각 성향마다 20-10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정보탐색형 성향(Monitoring style scale)이 Chronbach $\alpha=0.834$, 정보회피형(Blunting style scale)이 Chronbach $\alpha=0.791$ 로 나타났다.

2) 불건강 행위 측정도구

이 도구는 지난 1년간의 음주, 흡연, 식습관, 운동, 건강검진, 약물남용, 교통안전, 안전한 성행위 등 8가지 영역의 건강위험행위와 건강기여행위의 불이행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각 영역마다 2문항씩 총 16문항의 4점 총화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e(2004)가 「1998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국민의 건강행위 실천정도를 조사한 항목과, 미국의 공중보건사업국(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개발한 건강행위 사정도구를 참조하여 8가지 영역의 내용을 구성하여 만든 도구로서 개발당시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신뢰도는 Chronbach $\alpha=0.627$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alpha=0.645$ 로 나타났다.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문항을 역코딩 한 후 총점을 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건강 행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며 점수의 범위는 16-64점까지이다.

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보조원은 간호대학원생이었으며,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에게 1시간씩 2회에 걸쳐 문항내용을 교육받은 뒤 자료수집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정보추구성향, 불건강 행위 정도는 기술적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 정도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453명(52.9%), 여자 403명(47.1%)이었다. 평균 연령은 약 37세이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Table 1). 이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이 불완전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된 64명 중에서 51명이 이 연령층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연령 간 성별분포의 차이는 χ^2 검정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57, p=.603$).

2. 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 및 불건강 행위 정도

연구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을 살펴보면, 정보탐색형

Table 1. Age and gender of the subjects

(N=856)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Mean(SD)
Gender	Male	453(52.9)	
	Female	403(47.1)	
Age (years)	19-29	252(29.4)	37.31(\pm 11.15)
	30-39	232(27.1)	
	40-49	226(26.4)	
	50-64	146(17.1)	

성향은 100점 만점에서 평균 72.96점, 정보회피형 성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73점으로 나타나서 대상자들의 정보탐색형 성향의 점수가 정보회피형 성향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2). 불건강 행위 점수는 64점 만점에 평균 30.67점으로 나타났고, 응답치중에서 최고 점수는 46점으로 나타났는데(Table 2), 이는 16문항의 불건강 행위를 모두 보통정도로 하고 있다고 답했을 때의 점수인 48점보다 낮은 점수로서 16문항의 모든 항목에서 모두 불건강 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음을 나타낸다.

3.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성향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두 가지 정보추구성향 즉, 정보탐색형 성향(monitors style)과 정보회피형 성향(blunting style)이 각각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였다. 먼저 정보탐색형 성향(monitors style)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1).

다음으로 정보회피형 성향(blunting style)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2).

4.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불건강 행위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불건강 행위 점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가 여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보다 높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정보탐색형 성향(monitors style)과 불건강 행위는 부적 상관관계를, 정보회피형 성향(blunting style)과 불건강 행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2. Information seeking style and high risk behaviors of the subject (N=856)

Variable	Categories	Mean(SD)	Range	Possible range
Information seeking style	Monitoring	72.96(± 10.01)	27-99	20-100
	Blunting	58.73(± 9.63)	24-95	20-100
High risk behaviors		30.67(± 4.92)	16-46	16-64

Table 3-1. Difference in information seeking style(monitors style) by gender (N=856)

	Mean(SD)	t	p
Male(n=453)	71.34(±9.48)	-5.052	.000
Female(n=403)	74.77(±10.29)		

Table 3-2. Difference in information seeking style(blunting style) by gender (N=856)

	Mean(SD)	t	p
Male(n=453)	58.10(± 9.45)	-2.052	.040
Female(n=403)	59.45(± 9.80)		

Table 4. Differences of high risk behaviors by gender

	Mean(SD)	t	p
Male(n= 453)	32.21(± 5.14)	10.420	.000
Female(n= 403)	28.94(± 4.01)		

Table 5. Correlations of information seeking style and high risk behavior

(N=856)

	Monitoring style	Blunting style
Monitoring style		
Blunting style	.358**	
High risk behavior	-.082*	.153**

*p<.05; **p<.01

IV. 논 의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인은 정보회피형 성향 점수보다 정보탐색형 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약 20여 년 전 Lee(1983)가 한국인의 대처 성향이 대부분 회피 유형이 공통적이라고 지적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Hamburg와 Adams(1967)는 대처(coping)를 정보의 이용과 추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볼 때 20년 전에 비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 시스템의 발달에 힘입어 사람들의 정보의 이용과 추구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정보탐색형 성향 점수가 정보회피형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탐색형 성향과 불건강 행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정보회피형 성향과 불건강 행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Miller(1995), Shi, Nakamura와 Takano(2004), Steiner 등(2002), Votta와 Manion (2004)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Miller(1995)는 정보탐색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건강관련 정보에 더 잘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Shi, Nakamura와 Takano(2004)는 건강정보추구가 건강

행위의 긍정적 변화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Steiner 등(2002)과 Votta와 Manion(2004)은 정보회피형 성향이 불건강 행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추구 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에서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 Christensen 등(1997)은 투석을 받는 환자들 중에서 정보탐색형 성향을 가진 개인이 오히려 체중증가와 혈중 칼륨 조절이 안 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학적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더 많고, 과장된 건강위험감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Christensen 등(1997)의 연구는 각종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확대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만약 대상자가 동일한 건강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정보회피형 성향의 개인이 정보탐색형 성향의 개인보다는 불건강 행위 정도가 더 높고, 불건강 행위의 교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효과도 적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Barsevick와 Johnson(1990)은 환자의 정보추구 성향에 따라서 정보의 형태나 양의 요구도가 정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정보추구성향에 따라 정보 제공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보회피형이나 정보탐색형 성향의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와 양의 정보제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성별에 따라 불건강 행위를 비교했을 때 남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가 여성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Liu 등(2006)은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가 개인의 대처성향과 불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특정 건강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건강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지각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Lee, 2004). 한 예로,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매우 허용적이며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음주 행위를 심각한 불건강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남성들의 직업을 가진 비율이나 사회생활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남성 집단은 여성에 비해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요인이 남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가 여성의 불건강 행위 정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불건강 행위 교정을 위한 정보제공 중재에 있어서 남성 집단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로 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이는 두 성향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거나(Miller, 1987) 두 성향이 반대적 개념일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Miro(1997)는 Miller(1987)의 정보추구성향 측정도구를 스페인어 버전으로 바꾸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636명을 대상으로 두 성향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이때 두 성향은 0.42의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성별에 따라 정보추구성향을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 중에서 꼭 한 가지 성향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성향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

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보추구성향이 대처의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각성’을 의미하는 ‘정보추구’와 ‘회피’를 의미하는 ‘정보회피’의 반응을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건강조절위(HLOC) 개념의 경우에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적 성향, 외적 성향만으로는 설명이 제한적이어서 반응 유형의 개념으로 내적성향이 강한 사람, 외적 성향이 강한 사람, 내외적 성향이 모두 강한 사람 등으로 개인을 구분하였듯이(Wallston, Wallston, & DeVellis, 1978) 정보추구 성향에서도 정보탐색형 성향이 강한 사람, 정보회피형 성향이 강한 사람, 정보탐색형과 정보회피형 성향이 동시에 강하거나 약한 사람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불건강 행위 수정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의 성별, 정보추구성향, 불건강 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한 상관조사연구로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임의 표출된 85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정보추구성향은 정보탐색형 성향 점수가 정보회피형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 2)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성향의 차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각각 $t=-5.052$, $p<.01$, $t=-2.052$, $p<.05$).
- 3) 성별에 따른 불건강 행위의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건강 행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0.420$, $p<.01$).
- 4)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상관관계 조사결과, 정보탐색형은 불건강 행위와 부적 상관관계($r=-.082$, $p<.05$)를, 정보회피형 성향은 불건강 행위와 정적 상관관계($r=.153$, $p<.01$)를 보였다. 한편 정보탐색형 성향과 정보회피형 성향은 정적 상관관계

($r=.358, p<.01$)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불건강 행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간호 중재로서 효과적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보추구성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개인의 정보추구성향에 따라 즉, 정보회피형이나 정보탐색형 성향에 따라 어느 만큼의 정보와 어떤 형태의 정보가 유용한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에 따른 정보추구성향과 불건강 행위의 차이만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중재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의 소득이나 연령,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Barsevick, A. M. & Johnson, J. E. (1990). Preference for information and involvement, information seeking and emotional responses of women undergoing colposcopy. *Res Nurs Health, 13*, 1-7.
- Christensen, A. J., Moran, P. J., Lawton, W., Stallman, D., & Voigts, L. (1997). Monitoring attentional style and medical regimen adherence in hemodialysis patients. *Health Psychol, 16*(3), 256-26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Griffin, R. J., Dunwoody, S., & Neuwirth, K. (1999). Proposed model of relationship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to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behaviors. *Environ Res Section A, 80*, S230-S245.
- Hamburg, D. & Adams, J. (1967). A perspective on coping: seeking and utilizing information in mazor transactions. *Arch Gen Psychiatry, 17*(3), 277-284.
-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a).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2005 - *Health behaviors of adults* -, [on-line] <http://blog.korea.kr/health>.
- Korea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6-b). International statistics(OECD), Table 10-1-15 Regular smoking habits (Male): 1970-2000, [on-line] <http://blog.korea.kr/health>.
- Lee, D. S. (2004). A structural model development of health insensitivity in Korean adult. *J Korean Acad Adult Nurs, 16*(3), 355-365.
- Lee, D. S. & Lee, E. O. (2003). Concept analysis of health insensitivity using hybrid model. *Korean J Health Educ Promot, 20*(2), 145-170.
- Lee, S. S. (1983). Coping styles of korean adults. *J Kyungshung Univ, 4*, 249-259.
- Liu, H., Miller, L. G., Hays, R. D., Golin, C. E., Zhao, H., Wenger, N. S., & Kaplan, A. H. (2006).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for adherence to antiretroviral medications and exploratory analyses for identifying optimal sets of survey questions. *AIDS Patient Care STDS, 20*(11), 760-772.
- Mayer, D. K., Terrin, N. C., Kreps, G. L., Menon, U., McCance, K., Parsons, S. K., & Mooney, K. H. (2007). Cancer survivor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a comparison of survivors who do and do not seek information about cancer. *Patient Edu Couns, 65*(3), 342-350.
- Miller, S. M. (1987). Monitoring and blunting: validation of a questionnaire to assess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J Pers Soc Psychol, 52*, 345-353.
- Miller, S. M. (1995). Monitoring versus blunting styles of coping with cancer influence the information patients want and need about their disease. *Cancer, 76*, 167-177.
- Miro, J. (1997). Translation, validation, and adaptation of an instrument to assess the information-seeking style of coping with stress: the Spanish version of the Miller Behavioral Style Scale. *Pers Individ Dif, 23*(5), 909-912.
- Rice, R. E. (2006). Influence, usage, and outcomes of internet health information searching: multivariate results from the Pew surveys. *Int J Med Inform, 75*, 8-28.
- Shi, H., Nakamura, K., & Takano, T. (2004). Health value and health information seeking in relation to positive change of health practice among middle-aged urban men. *Prev Med, 39*, 1164-1171.
- Stein, J. A. & Nyamathi, A. (2000). Gender differences in behavioral and psychosocial predictors of HIV testing and return for test results in a high-risk population. *AIDS Care, 12*(3), 343-356.
- Steiner, H., Erickson, S. J., Hernandez, N. L., & Pavelski, R. (2002). Coping styles as correlates of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J Adolesc Health, 30*(5), 326-335.
- Votta, E. & Manion, I. (2004). Suicide, high-risk behaviors and coping style in homeless adolescent male's adjustment. *J Adolesc Health, 34*(3), 237-243.
- van Zuuren, F. J. & Wolfs, H. M. (1991). Styles of information seeking under threat: Personal and situational aspects of monitoring and blunting. *Pers Individ Dif, 12*, 141-149.
- Wallston, K. A., Wallston, B. S., & DeVellis, R. (1978).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s. *Health Educ Monogr, Spring*, 160-170.
- W. H. O. (2006). (on-line) <http://www.who.int/topics/en/>